

# 깨닫지 못했기에 깨달을 수 있고

돈오(頓悟)란 물속 온전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80퍼센트 혹은 90퍼센트 깨닫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아 돌아다니다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이 물에 돌을 던지자 '퐁' 하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때 물고기는 전체가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업장의 후박(厚薄)이나 노력의 경중(輕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오는 곧 성불이며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하면 바로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처나 조사나 나 자신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만 모르고 있는가?' 하는 대본심과 참으로 알고자 하는 간절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절인연이 무르익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언하(言下)에 깨닫기도 하고, 종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마음문이 열리기도 하며, 할이나 방에 의해 마음의 기쁨이 돈발(頓發)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보다가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 다가올 지 모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까닭은 물고기가 본래 물속에 있듯이, 사람마다 본래 성품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들고 있는 모든 망상과 집착을 놓기만 하면 되니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부처나 조사와 같이 상근기반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보조 스님은 도(道)에 들어가는 문(門)은 많으나 대개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최상근기가 돈오(頓悟)에 들어가지만 이미 여러 생애 걸쳐 닦은 결과 금생에 이르러 독자 깨달음과 동시에 뒤음을 마친 것이니, 이 또한 깨닫고 나서 닦은 결과라고 하였다. 당연한 귀결로 이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밝아온 길이며, 과거의 모든 성인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나갔고, 그 닦음에 의해 증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차츰 익혀야 나타나는 것이며, 깨달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신통이란 통달한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한 것이며, 성인에게 있어서도 말단의 일이며, 혹은 나타낼 지라도 요긴하게 쓸 것은 못 됩니다.

깨달음은 불혹(佛性)을 온다. 동시에 모든 의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체는 분명해지나 일상 속의 망념과 습기는 곧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규봉 스님은 "얼음 못 전체가 물인 줄은 알았으나 햇빛을 받아 녹고, 범부가 부처인 줄 깨달았으나 법의 힘을 의지하여 익히고 닦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얼음이 녹아 물이 흘러야 그 물에 씻는 보람이 나타나고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 광명의 작용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깨닫고 나서 성태



## “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깨칠 기약 없지만 들고 있는 망상·집착 내려 놓으면 참 쉬워 ”

(聖胎)를 길러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육근을 갖추고 있는 것이 다른 어른과 다를 바 없으나 그 힘은 충실치 못하므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중에 어느 것이 옳은 기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바로 알면 둘 다 맞습니다. 돈오돈수만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수심결>은 너무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시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道) 혹은 각(覺)이라 하면 뭔가 어려워 하고 거창해야 한다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환호하고, 쉽게 얘기하면 반신반의합니다. 마치 똑같은 유명회사의 명품인데도 비싼 가격을 매겨 놓으면 팔 잘리고 정상 가격을 매겨 놓으면 팔 잘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사스님은 "다가오는 대로 목은 업을 녹여낼 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닦을 것도 깨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어서 늘 특별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돈오 후에는 일상 속에서 본래의 성품자리를 지키면서 성태장 양하는 오후보임(悟後保任)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닦음이 없는 닦음(無修)' 즉 '참된 닦음(眞修)'입니다. 이 기간의 길고 짧은은 깨달은 자의 근기에 따라 다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곧 부처인데 깨닫기 위해 무슨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방법을 써서 알고자 한다면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눈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찾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밖으로 헤매고 다녀도 이미 자기 스스로의 눈이니,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곧 눈을 보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면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할 줄 알면 곧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자

기 눈을 찾아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도 자기 집은 잘도 찾아옵니다.

도(道)는 알고 모르는데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꿈이나 환상 같아서 망념 또한 본래 고요하고 텅 비었습니다. 일체가 공(空)한 곳에 영지(靈知)가 밝으니 텅 비어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이 바로 본래면목(本來面目)입니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단계를 밟지 않고 곧장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마다 삼계에 뛰어남과 날마다 만양의 황금을 녹이고도 남음이니, 참으로 대장부의 일대사를 마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적영지(空寂靈知)의 마음일까요?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며 때로는 울고 그르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운전하며 작용합니까? 만약 몸이 그렇게 한다면 목숨이 다하여 몸이 썩지 않았는데도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를 못하며 혀는 말하지 못하니, 어찌 몸이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들어보십시오(返聞性). 그 안에서는 일체의 소리와 분별을 얻을 수 없는 데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님이 진리에 들어간 이권원통(耳根圓通)의 문(門)입니다. 그곳은 일체를 얻을 수 없으나 밝고 밝아 어둠이 없으며, 또한 모양도 없어서 말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그곳은 대소가 없고 인편이 없으며, 원근이 없고 피차 없으며, 왕래가 없고 생사가 없으며, 고금(古今)이 없고 미오(迷悟)가 없으며, 범성(凡聖)이 없고 염정(染淨)이 없으며, 시시비비와 이름과 말도 없는지라. 이것이 본래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 공적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공한 곳에 영지가 어둠이 없어 스스로 싱겁게 아는 이것이 청정한 마음의 체(體)입니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맑



고 밝은 마음이며,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각성(覺性)입니다. 이 마음은 성인에 있어도 더하지 않고 범부에 있어도 줄어들지 않으니 부처와 중생이 어찌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성인이 범부와 다른 것은 매(매)하지 않고 능히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비록 물록 깨달은 것이 부처님과 같으나 다생의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바람이 멈추어도 파도는 출렁이고 진리가 나타나도 망상은 생겨납니다. 그런 까닭에 대혜종교 선사께서 "영리한 무리들이 큰 힘 들이지 않고 이 일을 밝히면 쉬운 마음을 내어 다시 뒤지 않다가 세월이 흐르면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 윤회를 면치 못한다"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항상 비추어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면 털고 또 털어서 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친 것이니, 천하 선지식의 '깨달은 후에 소머리는 행(행牛行)'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 하지만 망령된 생각은 본래 공

하고 심성은 본래 깨끗한 것임을 이미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으려 해도 끊을 것이 없고 선을 닦으려 해도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의 점수와 깨달은 후의 점수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깨달은 후의 수행은 일상속에서 늘 깨달은 경지를 지키며 성태(聖胎)를 기르는 오후보임(悟後保任)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돈오점수라 하여 깨달음을 위해 새로이 닦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깨닫기 전의 점수와 깨달은 후의 점수는 그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깨닫기 전의 점수는 깨닫기 위해 화두나 염불, 위빠사나 기타 수행방법을 써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깨달은 후의 점수는 더 이상 매(매)하지 않는 성품자리를 보인하고 성태를 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공(功)들어 있지 않고 생각 생각에 뒤지만 매사에 의심이 나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어떤 한 물건이 가슴속에 걸려 있는 것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 전통  
프랑스의 알과 온이 담긴 우리 민속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900원  
→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800원  
→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 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공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십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수맥감정사**

수맥을 피하면 장사가 잘되고 사업 운이 바뀐다. 가정에 불화가 없어지고 건강을 지키며,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양택(집터), 음택(묘자리), 관정(우물)  
1회 감정액은 3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실정임

**교육일시**  
◆1차 : 2008년 11월 19일 오후 5시 - 20일까지  
◆2차 : 2008년 11월 29일 오후 5시 - 30일까지

수맥에서 중생 및 영가를 구제하고 건강과 사업운을 바꿔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있겠는가?

(엘로드로) 명당 탐지기 관동사 사용법, 생기, 사기, 판별법 (주로 양택, 음택, 명당에 등급 나누는 법, 사람의 병자를 보는 법 등 감정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평생 지도함.

**교육비** 스님, 법사 30만원 / 일반인 50만원 (자격증 수여함)

충남 공주시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대한수맥 감정사 협회장)  
TEL 041)855-7114 / 016-552-2159  
누구라도 배울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김금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